

9월, 꿈바당편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라고 치면 그 외의 일들은 뭐든지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일든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 기시미 이치로의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중에서 -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부모 참관수업이 있었는데 바쁜 일정으로 아빠가 유치원에 갔었지요. 그날 수업 주제는 '환경'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환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전부 다 하죠?" 라고 질문을 했고 아이들은 모두가 합창으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어린이는 손을 들어 보라고 하셨고, 이어 안하는 어린이도 손을 들어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손드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집 막내가 번쩍 하고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 아이는 딱 한명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남편은 엄마들 틈에서 혼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며 수업 다녀온 하소연을 했었지요.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막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쓰레기 종량봉투에 몽땅 다 넣고 밖에 내다놓는 것이 내가 아는 쓰레기 처리법이었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모습만 보던 막내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말 만큼이나 캔, 병, 플라스틱 등 하나하나 종류별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참 생소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셋인지라 사건, 사고 역시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아이발이 바퀴에 끼인 줄도 모르고 운전하다 아이발이 부러져 깃스 한일, 갓 짠 참기름을 음료수병에 담고 보관했다가 아이가 음료수인줄 알고 별컹별컹 마시게 한 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콩가루를 놀임감 삼아 온 집안에 다 콩가루 세례를 하게 했던 일 등 대책 없는 엄마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꿈바당에서 많은 엄마들을 봅니다.

아이가 한명인 엄마도 아이가 셋인 엄마도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엄마, 새로 만든 숲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엄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 우는 아이들 달래려 애쓰는 엄마 등 모두가 도서관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간과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변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방법은 얼마든지 많겠지요? 꿈바당 아이들과 엄마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아이는 엄마를 서로 그렇게 지켜주는 따뜻한 배경이 되는 것 같아 새삼 가족의 힘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 가족이 엄마가 되었던, 아빠가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던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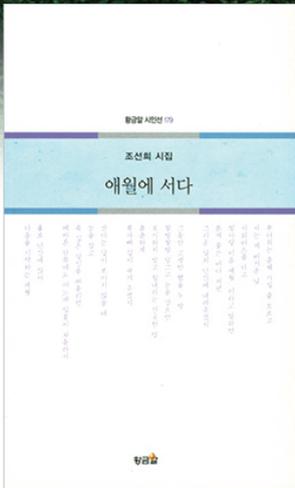
한때 실수만발이었던 엄마를 불안하지만,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켜준 것도 바로 가족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가을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인 만큼, 꿈바당으로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족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꿈바당에서 누리보시길 바랍니다.

9월, 감이 익어가는 꿈바당에서

꿈바당책장

비자림에는 추억이 묻어있네
- 조선희 -



가끔은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글을 쓰게 되었을까? 확실한 정답은 알 순 없지만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만족한 말을 들려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통해 세상 나들이하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한 줄 한 줄 읽으며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상상의 나라를 활짝 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행복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시의 소재를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언제나 주위에서 찾았습니다. 돌 담 밑에 낮게 핀 채송화처럼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 어머니에게 빗자루로 맞은 이야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못 한 게 미안해서 지금도 시를 통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철없는 딸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제주 토박이입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얌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구좌읍 평대리가 고향입니다. 웃기지요? 얌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니요. 그만큼 먹고살기가 각박했다는 말을 뜻합니다. 가끔 시도 안 써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고향에 있는 비자림을 찾아 걷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잘 정비된 숲길을 걷노라면 어릴 적 친구들과 소풍을 와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과 김밥을 먹고 빈 도시락에 비자 열매를 주워서 담곤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만든 비자나무 바둑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비자나무가 내뿜는 맑은 공기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차곡차곡 기억한 귀퉁이에 쌓여 있는 추억을 꺼내어 혼자 빙그레 미소 지을 때도 참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라 비자 열매도 기인 거울에는 훌륭한 간식거리였답니다. 예전에는 비자림을 지키던 산지기가 있었답니다. 산지기는 비자 열매를 몰래 주워가는 어른들을 혼내곤 했는데 사는 게 힘든 시절이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지기 몰래 두근거리며 비자 열매를 주워 팔았던 어머니가 비자림에 오면 언제나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오랜만에 찾은/ 비자림 산책길/ 간밤에 불어대던 바람에/ 와르르 떨어진 비자 열매/ 어느새 양손에 한 짐이다/ 대물림한 가난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 커가는 자식 생각에 새가슴 누르며/ 산지기 몰래 주워와 상인에게 팔던 당신/ 열매마다 알알이 스민 세월/그렇그럼 눈물 맺힌 이야기/내 손안에 그득한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묻는다/ 열매 좀 먹을 수 있느냐고/ 손을 환히 내보이는데/ 지금도 울먹울먹/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 -비자 열매-

지나버린 옛이야기지만 소중한 추억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나 봅니다. 옛 추억에 젖어 숲길을 걷다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숲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장소입니다. 눈을 감으면 산지기 몰래 비자 열매를 줬던 어머니 심장 소리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콩닥콩닥



조선희 시인

2008년《시사문단》등단 / 시집: 『수국꽃 편지』 『애월에 서다』

어제 읽은 책 ①

아빠, 나한테 물어봐

버나드 외버 글 / 이수지 그림.웁김/비룡소 / 청구기호 [그림책방 843와440]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책 작가 버나드 외버가 글을 쓰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가 그림을 그린 '아빠, 나한테 물어봐'는 가을날 산책을 통해 아빠와 딸이 함께 보낸 하루가 담긴 그림책입니다.

표지를 넘기면 아빠와 딸이 산책을 가기 위해 모자를 쓰고 겹옷을 입는 자연스런 일상부터 만나게 됩니다. 아빠가 '넌 뭘 좋아하니?'라고 묻고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이어 나갑니다. 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아빠는 또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처럼 아이와 아빠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질문 하나와 귀담아 듣는 것으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그림책은 아빠와 딸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간결한 문체를 통해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가을날의 아름다움과 산책의 즐거움은 그림을 통해 생동감 있게 그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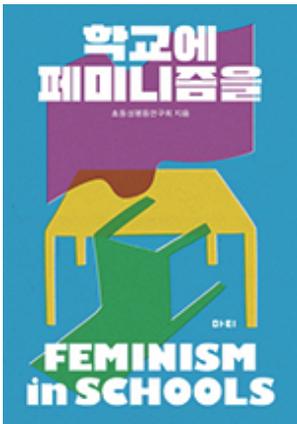
우리는 그저 그들의 발걸음과 대화를 따라가고 거기서 마주치는 가을 풍경을 함께 즐기면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수지 작가는 가을에만 보이는 자연의 빛깔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색연필만으로 채색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그려낸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 산책 장면들을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어제 읽은 책 ②

학교에 페미니즘을

초등성평등연구회 지음 / 마티 / 청구기호 [일반 337.2 초27ㅎ]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공교육 현장에 난무하는 소수자 혐오와 성차별적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초등 교사들의 모임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족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초등 교사 아홉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여성혐오로 물든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성평등 교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그사이 겪은 고민들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오류들이 현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책에서 소개하는 초등학교 현장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실이라기보다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구분에 의한 편협한 생각과 사고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 시간들이 쌓여 아이들이 성적 역할이나 재능을 단정 짓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성향차이였던 것이 어른들의 말이나 시선에 의하여 고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별이라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만의 성격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정립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열람실 조경림 사서-

도서 전시 소식

9월, 주제가 있는 컬렉션. 오름에 오르다, 숲이 차오르다

제주의 숲, 오름을 주제로 다양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고 누리기 위한 인류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 프로그램

나와 닮은 이들을 찾아 큰집, 작은집, 이모 집, 고모 집으로 떠나는 한가위.

여름내 붉은 빛깔 자랑하던 봉숭아 대신 코스모스가 수놓는 들판.

9월의 풍경은 참 정겹습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사랑 이는 가을바람에 활력을 찾습니다.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우리아이들!

가을을 글로 물들일 꼬마 작가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글짓는 아이들

꼬마 작가의 노란 우체통 / 언어에 물들다

재미있는 생각놀이와 문학이 만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입니다.

생각놀이를 통해 확장된 상상력은 질문하는 어린이를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9월은 숲, 오름을 주제로 나무집 만들기, 숲속 동물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문학과 음악의 만남 글을 노래하다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서와 경험을 연결시켜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동요 개사를 시작으로 책 속 글에 멜로디를 더해가며 스스로 곡을 만들어가는 꼬마 작곡가들.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 부르는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이미 반해버렸습니다^^



9월

프로그램 일정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 책 읽어주세요! 11:00~12:00
2	3	4 휴관	5	6 · 글을 노래하다 16:00~18:00	7 · 꼬마작가의 노란 우체통 16:00~18:00 · 언어에 물들다 16:00~18:00	8 · 책 읽어주세요! 11:00~12:00 · 민오름 다시 또 가을 14:00~16:00 · 숲 속 이야기 15:00~17:00
9	10	11 휴관	12	13 · 글을 노래하다 16:00~18:00	14 · 꼬마작가의 노란 우체통 16:00~18:00 · 언어에 물들다 16:00~18:00	15 · 책 읽어주세요! 11:00~12:00 · 백로랑 추분이랑 14:00~16:00 · 숲 속 이야기 15:00~17:00
16	17	18 휴관	19	20 · 글을 노래하다 16:00~18:00	21 · 꼬마작가의 노란 우체통 16:00~18:00 · 언어에 물들다 16:00~18:00	22 · 책 읽어주세요! 11:00~12:00 · 백로랑 추분이랑 14:00~16:00 · 숲 속 이야기 15:00~17:00
23 · 30	24	25 휴관	26	27 · 글을 노래하다 16:00~18:00	28 · 꼬마작가의 노란 우체통 16:00~18:00 · 언어에 물들다 16:00~18:00	29 · 책 읽어주세요! 11:00~12:00 · 민오름 다시 또 가을 14:00~16:00 · 숲 속 이야기 15:00~17:00 · 명사가 읽어주는 그림책 16:00~16:30



도서관과 사람

9월, 도서관 정원의 나무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박가온(9살) 어린이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가온이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선생님은 몬스터!" [그림책방 843-브29사] 라는 그림책입니다. 선생님을 몬스터라고 생각하는 바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피터 브라운의 그림책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그림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하 꿈): 안녕하세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언제부터 왔나요?

가온: 1학년 때부터 왔어요. 글짓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꿈: 9월 도서관 주제가 숲과 오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주의 오름에 올라가본 적 있어요? 그리고 숲은 꼭 있어야 할까요?

가온: 저는 물참오름에 올라가 봤어요. 공기가 좋고 숲도 예뻐요. 제주도에만 오름이 있어요. 섬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숲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살아야 하니까 꼭 있어야 해요.



꿈: 파브르 아저씨는 곤충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식물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식물을 왜 훌륭하다고 생각했을까?

가온: 식물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또 땅에 비가 내리면 나무가 흡수해서 물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파브르 아저씨가 말한 것 같아요.

꿈: 예준이가 8월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릴레이 질문은 "나중에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였어요. 가온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온: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 아이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거나 슬플 때 기쁨을 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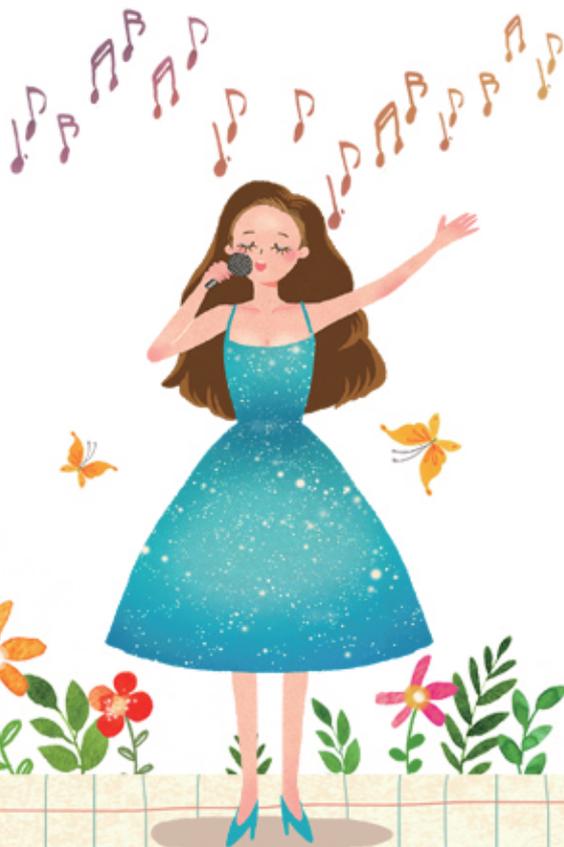
꿈: 그럼 나중에 아이돌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연도 해 줄 거예요? 밖에 야외무대가 있거든요.

가온: 도서관에 꼭 공연하러 올게요!

꿈: 다음 달에도 다른 어린이와 인터뷰를 할 건데요, 그 친구한테 궁금한 것 있어요?

가온: 음. 좋아하는 책이 뭔지 물어봐주세요.

도서관 10주년, 20주년이 되는 날, 가온이가 멋진 공연으로 축하해주는 상상을 해보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9월 인터뷰에는 도서관 9월 주제인 숲과 오름, 노정임 작가의 [파브르에서 배우는 식물이야기]에서 고른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감,공간



제주의 도서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27
중앙동주민센터 3층.
전화: 070-4548-1409
휴관일: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2012년 7월에 개관하여 서귀포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계단마다 붙여진 책 제목들을 보며 계단을 오르면, 책도 읽고 꿈도 키우는 우리동네 도서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곳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물론, 다문화아동 프로그램과 작가와의 만남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연말에는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의 한 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은 [나는 그림책 소풍가요]라는 그림책 창작교실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함께 보고, 글자 없는 그림책에 글과 그림을 입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이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의 책방

시옷서점

주소: 제주 제주시 인다13길 45-4
전화: 010-4521-2592
블로그: <http://blog.naver.com/bookshsa>

제주의주택가골목에일주일에나흘, 해가지면문을여는 시옷서점이있습니다. 네모반듯한원고지 모양 간판에 시옷서점 네 글자가 단정하게 들어앉았습니다. 시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곳에서는 섬세하게 큐레이션된 시집으로 가득한 서가 사이에서 시인들과 동네주민들의 모임이 열립니다. 장이지 시인의 '레몬엘로'라는 시집을 사들고 나오는 밤길, 어느 날 창문에 비친 빛을 레몬엘로라 부르고 시를 쓴 시인과, 레몬엘로라는 색은 뭘까 고민하고 표지의 색을 골랐던 그 누군가와, 이 책을 어디 놓으면 눈에 띄까 고민한 시옷서점 주인장의 마음이 층층이 더해졌습니다.

시시콜콜 뉴스



숲속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도서관 북카페 옆 큰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한번쯤 꿈꿔왔던 나무집이 있고, 그네와 방방,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사장까지, 편백나무 향기 가득한 놀이터입니다. 뛰노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도서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처음 만났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함께 쓰는 공간이니, 옆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가요!



감성 톡톡 미술놀이터!

9월부터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오후1시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타요'의 미술창작교실이 열립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되는 이 수업은 책을 읽고 그에 따른 미술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5명 정원이 금방 마감되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봉사로 내어주는 멋진 청소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책은 문학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다.
 그림책은 서사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다.
 그림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림책은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거나 또 다른 독자적인 그 무엇이다.
 그림책은 그냥 그림책이다.

그림책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만난 놀라운 환상적인 세계이며
 마음속에 세우는 또 하나의 세계이다.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8월 31일~9월 2일 김해시에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렸습니다. 양민숙 운영팀장과 최연실 운영지원팀원이 참석하여, <한국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 특별전을 관람하고 그림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림책 원화뿐만 아니라 이억배, 이영경, 안영달 작가의 제작노트까지 함께 전시하고 있어 작가의 창작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였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걱정스러웠지만, 관람객의 편리한 동선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힘을 모은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눈에 보여 본받을 점이 많은 행사였습니다.



도서관 중간평가워크숍

9월 10일 월요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안열 원장, 홍숙희 교육지원부장, 김보현 교육지원부원의 참석 하에 도서관 중간평가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중간평가워크숍은 도서관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안 수고했다고 칭찬으로 시작해주신 원장님의 말씀에 힘입어,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운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년 2019년을 준비하겠습니다.

